



삼단양식적 관점에서 본 전도서 11:1-12:8의 구조와 내용

박철우 | 나사렛대

1. 서론

성서해석과 번역에 있어 단락과 구조의 이해는 본문자체의 번역과 해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그중 많이 논란이 되어온 단락중의 하나가 전도서 11:1-12:8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도서 11:7-12:7(8)을 전도서 11:1-6과 구별된 독립된 한 단락으로 취급한다. 최근의 그 대표적 학자로 오그던(G. S. Ogden)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 프레데릭스(Daniel C. Fredericks)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전도서 11:1-12:8을 단

* 이 논문은 2013년 10월 4일 제93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나사렛대학교의 연구비 지원과제임.)

1) G. S. Ogden, "Qoheleth XI 7-XII 8: Qoheleth's Summons to Enjoyment and Reflection", VT 34(1984), 27-38; G. S. Ogden and Lynell Zogbo, *A Handbook on Ecclesiast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7), 405-433.





일 구조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²⁾ 이미 바튼(George Aaron Barton)은 전도서 11:1-12:8 전체를 하나의 독립된 단락으로 다루었다.³⁾ 이에 반해 크뤼거(Thomas Krüger)는 *Qoheleth*에서 전도서 11:1-12:8이 독립된 하나의 단락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접속사 ‘바브’로 연결된 두 개의 소단락(전 11:1-6과 전 11:7-12:7)이 내용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관찰한다. 즉 전도서 11:7-12:7이 삶속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삶과 죽음의 병치(juxtaposition)를 통하여 상대화시킨다(참고, 전 9:4)고 본다. 이 두 단락의 연결을 통하여, 삶이 비록 불확실한 면모를 가지고는 있지만(전 11:1-6), 삶은 죽음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전 11:7-12:7).⁴⁾ 필자는 이들의 구조이해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내재되어있는 삼단양식적 특징을 검토하고⁵⁾ 이를 통해 기존의 구조이해와 내용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가장 최근의 중요한 연구로서 이 본문구조이해에 있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프레데릭스의 관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본문의 구조와 해석에 관한 필자의 해법(삼단양식적 관점의 필요)을 제시하고자한다. 3장에서 전도서에 나타나는 삼단양식적 용례를 검토하고, 4장에서 전도서 11:1-12:8의 구조와 내용적 특징을 삼단양식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며 기존의 이해를 보완하고

2) Daniel C. Fredericks, "Life's Storms and Structural Unity in Qoheleth 11:1-12:8", JSOT 52(1991), 95-114; 그는 그의 2010년 출판 주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해를 보여준다: Daniel C. Fredericks / Daniel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0), 228-243.

3) George Aaron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2), 179-197; 참조, Michael A. Eaton, *Ecclesiast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3), 139-151, 그는 다음과 같이 단락을 나눈다: '믿음의 모험'(11:1-6); '기쁨의 삶'(11:7-10);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12:1-8).

4) Thomas Krüger, *Qohelet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4), 195; F. Delitzsch는 전 11:1-8을 독립된 한 단락으로 보고 이어서 전 11:9-12:8을 또 다른 독립된 단락으로 취급한다. 전 11:70이 접속사 '바브'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 둘을 독립된 단락으로 보지 않은 이유이다. F. Delitzsch, *Ecclesiastes*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6, eds. C. F. Keil / F. Delitzsch,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866, 2001), 780-806.

5) 삼단양식(triadic pattern)의 정의에 관해서는 본 논문 '3. 전도서에 나타난 삼단양식적 면모'의 서두 부분 참조(각주 16, 17, 18).



자 한다.

2. 프레데릭스의 논문에 대한 비평적 고찰

프레데릭스는 전도서 11:1-6에 관한 오그던의 주장을 소개한다. 오그던은 그의 두 논문에서 전도서 11:1-6이 전도서 9:17-10:20과 구별되는 독립된 문학단위임을 주장하며, 동시에 전도서 11:1-6이 전도서 11:7-12:8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문학단위임을 주장하였다.⁶⁾ 프레데릭스는, 전도서 11:1-6이 전도서 9:17-10:20과 전도서 11:7-12:8로부터 독립된 단락이라는 주장을 위해 오그던이 제시하는 네 가지 이유들이, 전도서 11:1-6과 전도서 11:7-12:8이 서로 연결된 단락임을 증명하는데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도서 11:1-12:8이 하나의 문학단위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전도서 11:7의 서두에 나오는 접속사 ‘바브’를 이접(disjunctive) 또는 강조(emphatic) 용법으로 보아 새 단락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문제점도 지적한다.⁷⁾ 전도서 11:1-6과 11:7-12:8의 관계는 이접(disjunctive)보다 연접(conjunctive)일 때 이해가 더 자연스럽다.⁸⁾ 로핑크(Lohfink)는 ‘바브’가 전도서 11:7-8을 11:1-6과 연결하며 결론부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⁹⁾ 델리취(Delitzsch)도 이 바브를 연접(conjunctive)으로 이해한다.¹⁰⁾

6) G. S. Ogden, "Qoheleth IX 17-X 20: Variations on the Theme of Wisdom's Strength and Vulnerability", *VT* 30(1980), 27-37; idem, "Qoheleth XI 1-6", *VT* 33(1983), 222-230

7) 참조, Daniel C. Fredericks, *윳글*(1991), 104-105; Craig G. Bartholomew는 바브를 강조용법으로 해석한다: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9), 339.

8) Robert Gordis의 경우는 이 바브를 연접("and")으로 보면서 새로운 주제의 시작으로 해석한다("introducing a new theme"), Robert Gordis, *Qoheleth—the man and his world*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334-336.

9) Norbert Lohfink,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3), 134, 원제는 Kohelet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10) F. Delitzsch, *Ecclesiastes*, 785; 참조, H. W. Hertzberg, *Predig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Mohn, 1963), 201, 203-204; 각주 4)

프레데릭스는 오그던이 비젠라트의 논지를 바탕으로 그의 1984년 논문에서 소개한 구조이해를 언급한다.¹¹⁾ 프레데릭스는 비젠라트와 오그던이 제시하는 병행적 구조뿐만 아니라, 전도서 11:3을 포함한 더 큰 단위의 중앙집중구조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전도서 11:3에 나오는 구름과 비와 12:1-2에 나오는 구름과 비가 병행을 이룬다는 점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도서 11:1-6과 전도서 12:1-8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전도서 11:1-12:8의 단일성을 주장한다. 설득력 있는 전개이다. 그러나 필자는 프레데릭스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삼단양식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필요한 구조에 매여 불합리한 인위적 전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프레데릭스가 제시하는 전도서 11:1-12:8의 중앙집중구조적 면모는 다음과 같다.

- 11:3 A 구름들과 비
 7 B 빛과 해
 8 C 어둠의 날들을 생각하라
 D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9 E 네 젊음을 즐겨라
 F 알아라... 심판의 하나님
 10 E' 네 젊음을 즐겨라
 D' 네 젊음의 모든 것이 헛되다
 12:1 C' 어둠/재앙의 날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11) Hagia Wizenrath는 *Süß ist das Licht... Eine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zu Kohelet 11,7-12,7* (Eos Verlag, 1979)에서 전도서 11:7-10과 12:1-7의 상호 연관성과 전 11:7-12:7의 문학적 통일성을 사마흐(חמח)와 자카르(זכ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전 11:8ab에 나오는 사마흐(Thema 1)가 11:9-10에서 재전개되며, 11:8cd에 나오는 자카르(Thema 2)가 12:1-7에서 재전개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특히 26, 35-36쪽). 오그던은 이를 기초로 그의 구조이해를 소개한다(G. S. Ogden, *Koheleth*, 193-194; 참조, Daniel C. Fredericks, *윳글*(1991), 100.

2 B' 해와 빛 A' 구름들과 비

우선 AB와 B'A'가 서로 병행을 이룬다는 사실은 좋은 관찰이다(A. 구름들과 비[11:3]; B 빛과 해[11:7] // B'. 해와 빛[12:2]; A'. 구름들과 비[12:2]). C와 C'와의 병행적 이해도 설득력이 있다. 우선 어두운 날들을 생각하라는 말(C, 11:8)과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C', 12:1)은 내용상 상관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그가 C와 병행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C'(전 12:1)에서 동사 '기억하다'의 목적어는 이 양자의 병행을 말하기에는 너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도서 11:8에서는 '기억하다'(כָּרַת)의 목적어가 '어둠의 날들'(יְמֵי חֹשֶׁךְ)인데 반하여, 12:1에서는 '네 창조주'(בּוֹרְאֵי)이다. 그리고 전도서 11:1-12:8에서 '창조주'(11:5; 12:1)에 대한 선포가 차지하는 구조적 중요성도 간과하고 있다.¹²⁾

헤벨(הֶבֶל)을 중심으로 한 D와 D'의 병행관계의 관찰은 옳다. 그러나 프레데릭스는 그의 논문에서, 헤벨을 중요한 병행요소(전 11:8, 11:10, 12:8, 이탤릭체로 언급)로 강조하고 있는 오그덴의 구조이해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³⁾ 이 구조적 요소를 전도서 11:1-12:8에 관한 그 자신의 구조이해에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이 전도서 11:1-12:8에서 갖는 구조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삼단양식적 특징의 관점에서, 전도서 11:8(D)에서 언급되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전도서 11:10(D')에서 언급되는 ‘젊음의 때가 다 헛되다’라는 말과 병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1:1-8의

12) 프레데릭스는 11:1-6과 12:1-8사이에서 창조적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올을 주장하지만 위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를 구조적(삼단양식)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참조, Daniel C. Fredericks, *윇글* (1991), 112-113.

13) Daniel C. Fredericks, *윇글*(1991), 100; 참조, G. S. Ogden, "Qoheleth XI 7-XII 8", 29-30.

결어로서, 11:9-10의 결어로서의 ‘젊음의 때가 다 헛되다’라는 말과 병행을 이루며 동시에 12:1-8의 결어인 ‘모든 것이 헛되다’와도 병행을 이루는 삼중적 결어(전 11:8; 11:10; 12:8)의 일부인 첫 번째 결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프레데릭스는 그의 구조이해에서 E(11:9)와 E'(11:10)의 병행을 주장한다. 프레데릭스는 ‘네 젊음을 즐겨라’를 중심으로 이 양자가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네 젊음을 즐겨라’[“Enjoy your Youth”] // ‘네 젊음을 즐겨라’[“Enjoy your Youth”]), 내용상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지라도, 병행구를 말할 때의 중요한 객관적 요소인 수사학적 증거 즉 구체적인 표현적 증거에 해당되는 병행적 요소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프레데릭스는 전도서 11:8과 12:3-8과의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서 11:1-12:8이 단일 구조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양하게 관찰하고 있다.¹⁴⁾ 특히 위의 구조이해에서 A와 A'(11:3; 12:2-6)에서 보여주는 ‘구름과 비’의 교차대구법이 전도서 11:1-12:8의 단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전도서 11:1-12:8에 대한 그의 구조이해는 특히 삼단양식적 관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¹⁵⁾ 이 본문(전 11:1-12:8)의 삼단양식적 구조를 이해할 때 ‘헤벨’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의 구조적 의미와 중요성도 더 명료하게 파악되리라고 본다.

3. 전도서에 나타난 삼단양식적 면모

삼단양식적 면모는 이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수사학적 특징

14) Daniel C. Fredericks, *윗글*(1991), 105-114

15) 이 관점의 결어로 인하여 그의 구조이해에서 12:3-8이라는 큰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는 이 부분을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chapter 3, *Structure, Content and Role of 12:3-8* [Daniel C. Fredericks, *윗글*(1991), 105-114]).

중의 하나이며 신약성서에서도 자주 검증되는 것이기도 하다.¹⁶⁾ 이러한 수사학적 면모는 전도서 전체라는 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전도서 1:1과 12:9-14가 각각 표제어와 결어로서 이 책의 서두와 말미에서 병행을 이루고, 전도서 1:2와 12:8이 ‘헤벨’을 중심으로 내용적 병행을 이루며 수미상응(inclusio)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양자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전도서 편집자가 삼단양식적 수사학적 요소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단양식은 세 개의 단어, 문장 또는 단락이 반복 또는 병행을 이루며 (특히 A-B-A'에서의 A와 A'가 병행)을 이루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적 단일체를 이루는 히브리 표현양식이다.¹⁷⁾ 이러한 수사학적 특징은 율기의 구조에서도 발견된다(서론부[1-2장]: 산문; 본론부[3:1-42:6]: 운문; 결론부[42:7-17]:운문).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시(Hebrew poetry)의 중심축 구조(pivot structure)와도 유사한 것이다.¹⁸⁾

16) E. J. Kissane, *The Book of Isaiah, Translated from a critically Revised Hebrew Text with Commentary*, Dublin, 1943; James Mullenburg,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 idem,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The Interpreter's Bible* (New York: Abindon Press, 1956), 381-773; Cheol-Woo Park, "The Triadic Pattern: A Study in the Structure of Isaiah 40-48", Doctoral Dissertation (Aberdeen University, 1984);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4); Roger Hahn, et al., *Discovering the New Testament: Community and Faith* (Kansas: Beacon Hill Press, 2004), 113; Donald Senior, *The Gospel of Matthew* (Nashville: Abingdon, 1997), 160-164.

17) 이 양식은 주로 동일한 표현 또는 유사 표현이 세 번 반복되거나,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병행을 이루며(A-B-A'에서의 A//A') 세 단락 또는 문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차대구법의 일종이지만, 이와 '구별'된다. Wilfred G. E. Watson, "Chiasmic Patterns in Biblical Hebrew Poetry," in *Chiasmus in Antiquity*, ed. J. W. Welch, (Hildesheim: Gerstenberg Verlag, 1981), 118-145; R. H. O'Connell, *Concricity and Continuity: The Literary Structure of Isai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3; idem, "Isaiah xiv 4b-23: Ironic Reversal through Concentric Structure and mythic Allusion," VT 38(1988), pp. 407-18.

18) P. Auffret, "Note sur la structure littéraire du Psaume LVI," Sem 27(1977), 59-73; Marvin E. Tate, *Psalms 51-100* (Dallas: Word Books, 1990), 76; Wilfred G. E. Watson, "Chiasmic Patterns in Biblical Hebrew Poetry," 145; Robert F. Smith, "Chiasm in Sumero-Akkadian," in *Chiasmus in Antiquity*, ed. J. W. Welch (Hildesheim: Gerstenberg Verlag, 1981), 17-35; Shamir Yona, "Pivot Patter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henomena in Biblical Parallelism," 「구약논단」 40(2011), 166-184.



전도서 안에는 여러 형태의 삼단양식적 면모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우선 전도서 1:12-2:26에서 볼 수 있다. 전도서 1:12-2:26은 하나의 커다란 문학단락이다.¹⁹⁾ 이것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전 1:12-18[서론]; 2:1-26[본론 + 결론]).

1. 전도서 1:12-18 (전도자[קְהֵלֶת אֲנִי] 아니 코헬레트)의 자기소개와
관심주제: 지혜와 인생사의 헛됨)
2. 전도서 2:1-26 (세 가지의 헛됨에 관한 고찰)
 - 1-11 (열락의 헛됨)
 - 12-17 (지혜의 헛됨)
 - 18-26 (수고의 헛됨).

우선 전도서 1:12-18은 1:12-15가 1:16-18과 구조적으로 병행을 이루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있다.

〈12-15절〉

12절, ‘나(אֲנִי) 아니, 1인칭대명사) 전도자(קְהֵלֶת) 예루살렘’, 마음을 다해 연구하며 살폈다(נִתְחַי אֶת-לִבִּי) 나타티 에트 리비)

14절, 1인칭단수동사(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רְאִיתִי אֶת-כֹּ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כָּל הַבָּל רְעוּת רוּחַ) 콜 헤벨 레우트 루아흐)

15절, 요약진술

19) 전 12-11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은 보편화된 이해이다(F. Delitzsch, 657-662; 델리취는 12-18절을 또 다른 단락으로 본다; 1:12-4:16을 큰 단락으로 보고 그 안에서 1:12-18; 2:1-11; 12-17; 18-23; 24-26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이해한다[F. Delitzsch, 662-683]); 참조. George Aaron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69-76; 바튼은 전 1:12-2:26을 또 다른 큰 단락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1:12-18; 2:1-11; 2:12-17; 2:18-26으로 나눈다. William P. Brown은 2:24-26을 1:12-2:26의 결론부로 다룬다. William P. Brown,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0), 37; 참조.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8), 106-110; R. N. Whybray, *Ecclesiastes*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9), 46-65(전 1:12-2:26을 한 문학 단일체로 본다).



<16-18절>

16절, '나는(אני) 아니, 1인칭대명사) 내 마음에(לבי 리비) 말하였다'(דברתי)

17절, 1인칭단수동사(나는 마음을 썼다(אָתְנָה לְבִי 에트나 리비); ירעתי 야다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같다(רוּחַ רָעוּן 라온 루아흐)

18절, 요약진술

전도서 2:1-26은 다음과 같은 삼단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세 개의 소단락, 전도서 2:1-11; 12-17; 18-26은 각각 헤벨(הֶבֶל)과 레우트 루아흐(רְעוּת רוּחַ)를 결어로 마감하며 구조적 병행을 이루는 삼단양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서 11:1-12:8과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전 2:1-11 (11절, 힌네 하콜 헤벨 הֶבֶל הַכֹּל הִנֵּה; 레우트 루아흐 רְעוּת רוּחַ)

전 2:12-17 (17절, 키 하콜 헤벨 הֶבֶל הַכֹּל כִּי-הַכֹּל; 레우트 루아흐 רְעוּת רוּחַ)

전 2:18-26 (26절, 감 제 헤벨 후 נִסְיָה הֶבֶל הוּא; 레우트 루아흐 רְעוּת רוּחַ)

특히 세 번째 소단락은 내용과 기능상 구별되는 두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전 2:18-23; 24-26), 전자는 다시 세 개의 '헤벨(הֶבֶל)'로 소소단락(sub-subunit)을 마무리 하는 삼단양식적 특징을 보여 준다(3개의 헤벨은 술어적 용법으로 사용됨).

A. 전 2:18-19 (19절, 감 제 하벨 נִסְיָה הֶבֶל הוּא)

B. 전 2:20-21 (21절, 감 제 헤벨 נִסְיָה הֶבֶל הוּא; 라아 라바 רָבָה רָעָה)

A'. 전 2:22-23 (23절, 감 제 헤벨 후 נִסְיָה הֶבֶל הוּא)



그리고 전도서 1:12-2:26의 결론부 역할도 하고 있는 전도서 2:24-26은 내용상 2:18-23과 구별되는 소단락으로 다음과 같은 삼단양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A. 24절 **בְּאָדָם אֵין-טוֹב**(사람[아담]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הִרְאָה שָׁחָה יֹאכֵל]), 세 개의 유사단어(동사)

B. 25절 **כִּי מִי**(키 미...) + **מִי**(미...)

A'. 26절 **כִּי לְאָדָם שָׂוִב**(사람[아담], 지혜 지식 기쁨, [שְׂמִיחָה רַעַת חֻכְמָה]), 세 개의 유사단어(추상명사).

전도서 2:24-26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미의 표현으로 내용을 강조하며 전체 단락 전도서 1:2-2:26을 마감한다.

삼단양식의 또 다른 예는 전도서 3:1-15에서 볼 수 있다. 전도서 3:1-8에서, 세상만사에 대한 불가지론적 서론을 다루고 이어서 이를 설명하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役事)임을 선포하는 내용(전 3:9-15)이 나온다. 로더(J. A. Loader)는 9-15절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 단락에서 12-13절이 9-15절의 중심에서 ‘삶의 즐거움’을 다루고, ‘하나님의 역사(役事)의 불가사의성’(inscrutability of God’s work)을 다루는 10-11절과 14-15절에 둘러 쌓여있는 중앙집중구조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관찰한다.²⁰⁾ 전도서 3:1-15의 수사학적 내용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1-8절〉, 서론적 선포(라콜 제만[מִן לֵבַי], 만사에 때가 있다)

20) J. A. Loader,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86), 39; 이러한 중앙집중구조(concentric structure)가 전 102-70에 나타난다고 보며 그 중심에 4절이 있다고 본다(116-118); 여기에서 그는 triadic structure(삼단양식구조) 또는 pivotal structure(중심축구조)라는 말 대신 concentric structure(중앙집중구조)라고 표현한다.





〈9절〉, 전환부(수사학적 의문문: מָה-יִתְרוֹן[what profit]사람이 애쓰다
고 무엇을 더 보낼 수 있는가)²¹⁾

〈10-15절〉, 결론적 선포(3개의 자기 깨달음)

1. 내가 보았노라 (10절, 라이티[רָאִיתִי])
2. 내가 알았노라 (12절, 야다티[יָדַעְתִּי])
3. 내가 알았노라 (14절, 야다티[יָדַעְתִּי])

이 단락은 서론부, 전환부, 결론부로 구성된 삼단양식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결론부 10-15절은 세 개가 자기 깨달음을 중심으로 삼
단양식 구조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도서 3:16-4:16에서 세상사의 불의와 모순에 관해 언급하는데, 특
히 4:1-16은 11:1-12:8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4:1-16은
내용상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심에 헤벨의 선포가 담
긴다.²²⁾

〈4:1-6〉, ‘내가 돌이켜..보았다’(שָׁבַתִּי אֲנִי וְאָרָאָה, 1절), 라아[רָאָה], 타
하트 하사메슈[תַּחַת הַשָּׁמַיִם]; (4절, 감제 헤벨[גַּבְלָהּ הֶבֶל]; 레우트 루아흐
[רְעוּת רוּחַ]; 6절 레우트 루아흐[רְעוּת רוּחַ])²³⁾

〈4:7-12〉, ‘내가 돌이켜..보았다’(שָׁבַתִּי אֲנִי וְאָרָאָה, 7절), 라아[רָאָה],
타하트 하사메슈[תַּחַת הַשָּׁמַיִם]; (7절, 헤벨; 8절, 감제 헤벨 [גַּבְלָהּ הֶבֶל])

21) 9절은 내용상 1-8절에도 속할 수 있고(은롤이 1-8절과 유사, BHS[BHQ]에도 9절까지를 1-8절과 동일한 들
여놓기[indention]로 시작함), 10-15절에 속할 수 있다. 9절은 이 양자에 다 속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전환부
역할을 한다(은롤도 1-8절 보다는 길고 10-15절 보다는 짧음).

22) 특히 이 면모가 전 11:1-12:8과 유사한 점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적 구조이해는 William P. Brown의
*Ecclesiastes*에서 볼 수 있다(4:1-6, the travesties of Toil and Justice; 4:7-12, Solitude and Solidarity; 4:13-16,
the "Poverty" of Wisdom). 그는 이 장을 the Problem with Power, that is, the abuse of power라는 내용을 다
루는 단락으로 본다; William P. Brown, *Ecclesiastes*, 48-54.

23) BHS는 첨가물로 여기나 명백한 근거는 없다; Aarre Lauha, *Kohelet*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84; Thomas Kr ger, *Qoheleth*, 81





<4:13-16>, '내가 보았다'(רָאִיתִי, 15절), 라아 [רָאָה], 타하트 하사메슈[תַּחַת הַשָּׁמַשׁ]
 (16절, 감제 헤벨 נִסְיָהּ הַבֶּל; 라온 루아흐 רֵוַח לֵוָי)

전도서 4:1-16은 전체적으로 삶의 헛된 면모들을 다룬다(학대와 성취, 독거, 승진). 전도서 4:1-16도 헛되다(הֶבֶל)를 중심으로 한 삼단구조로 되어있다(1-6절[4, 6절]; 7-12절[7, 8절]; 13-16절[16절]). 4, 6절과 7, 8절이 소단락의 말미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 결론적 선포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1절과 7절은 각각 '내가 돌이켜...보았도다(שָׁבַתִּי אֲנִי וָרָאָה)'로 시작하며 소단락을 구별해 준다.²⁴⁾ 13-16절은 승진을 주제로 하는 소단락으로, 13-14절에서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는 말로 서두를 연 후, 15절에서 1, 7절과 유사한 표현으로 '내가 보았다(רָאָה 동사)'는 표현과 '해 아래(תַּחַת הַשָּׁמַשׁ)'가 나란히 나오면서 세 개의 소단락이 서로 연결되는 삼단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전도서 5:1-7(MT 4:17-5:1-6)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서원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 부분은 세상사의 모순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 특별한 본문의 구조는 중앙집중구조적(A-B-C-B'-A'[삼단양식적 면모]) 특징을 보여 준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1-2절, 하나님 앞의 경건(אֶל-בֵּית הָאֱלֹהִים, 엘 베티 하엘로힘) 리프 네 하엘로힘(לִפְנֵי הָאֵל הַיָּם)
- B. 3절, 꿈과 말의 문제(הַלְמוֹת, 할로모트) 드바림(דְּבָרִים) 하나님

24) 4절에서는 '사브티 아니...타하트 하사메슈' 없이 '라이티'만 나온다. 4절의 동사 '라이티 아니'는 2절의 '사베 아흐 아니'와 함께 1-6절의 더 작은 구성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6절은 1절, 2-3절, 4-6절로 구성된 삼단 양식적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엘로힘) 언급없음

C. 4-6절, 서원의 문제(엘로힘[אֱלֹהִים]의 언급[MT 3a절]으로 시작하여 엘로힘[אֱלֹהִים]으로 마감[MT 5b절]하며, 서원[네 데르: נָדַר]의 문제를 다룸)

B'. 7a절, 꿈과 말의 문제(할로모트[חֲלֻמוֹת], 드바림[דְּבָרִים]) 하나님(엘로힘) 언급없음

A'. 7b절, 하나님 경외(키 에트 하엘로힘 여러[כִּי אֶת-הָאֱלֹהִים יִרָא]).

이어서 다시 불의와 삶의 모순에 관해 다시 전개되고(전 5:8-17[MT 5:7-16]), 전도서의 핵심적 선포중의 하나가 언급된다. 그 내용이 전도서 5:18-20(MT 5:17-19)이다.²⁵⁾ 전도서 5:18-20은 이 장 전체의 결론부 역할을 하는데,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은 삼단구조를 가지고 있다(전 5:18; 5:19; 5:20).²⁶⁾

〈18절〉, 보라 나는 보았노라...(히네 아셰르 라이터 아니... רֵאִיתִי אֲנִי אֲשֶׁר; 하나님(하엘로힘 האֱלֹהִים)의 분복이라(후 헬르코 הוא חֵלְקוֹ); 그 생명의 날들(여메 하야이브 יְמֵי חַיָּי)

〈19절〉, 또한 모든 사람...(감 콜 하아담... נָם כָּל-הָאָדָם); 하나님의 선물이라(마타트 엘로힘 히 מַתַּת אֱלֹהִים הִיא); 하나님(하엘로힘 האֱלֹהִים)

〈20절〉, 그러므로(정녕)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키 로 하르베 이즈코 르... כִּילֹא הִרְבֵּה יִזְכֵּר); 하나님(하엘로힘 האֱלֹהִים)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

25) 이것은 다시 8-9절, 10-12절, 13-17절로 나눌 수 있다: Michael A. Eaton, *Ecclesiast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3), 100-104; '역압적 관리아래서의 가난한 사람들'(5:8-9); '돈과 그 문제점'(5:10-12); '아끼던 재산과 잃어버린 재산'(5:13-17); '상기된 해결책'(5:18-20); William P. Brown은 전 5:1-20(MT 전 4:17-5:19)를 '공경의 단순성(the simplicity of reverence)'라는 주제를 다루는 단락으로 본다(William P. Brown, *Ecclesiastes*, 54-63). 그러나 그 내용의 이해에 있어 브라운은 1-7절, 8-9절, 10-17절, 18-20절로 나눈다. 단락구분에는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전 5:18-20을 한 단락으로 보는 데는 일치한다. 참조, Michael A. Eaton, *Ecclesiastes*, 103-104.

26) Michael A. Eaton도 18-20절의 내용이 셋으로 구별됨을 인지한다. 수사학적 구조는 관찰되지 않는다. Michael A. Eaton, 103-104.





는 것으로 응답하신다(하나님의 선물의 또 다른 표현임); 그 생명의 날들(여메 하야이브 יְמֵי חַיִּים).

각 절은 고유한 서두 문형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수사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각 절의 말미에서 ‘하나님’(하엘로힘[הַאֱלֹהִי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서로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고(세 개의 하엘로힘[הַאֱלֹהִים]), 그 내용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²⁷⁾ 18절과 20절은 ‘생명의 날들’(여메 하야이브 יְמֵי חַיִּים)을 중심으로 병행을 이룬다.

전도서 6:1-12에서 다시 세상사의 모순에 관해 다루어지고,²⁸⁾ 전도서 7:1-9:6까지 다양한 지혜의 내용과 그 모순적 상황에 관해 다루어진 다음, 전도서 9:7-10에는 특별한 결론적 선포가 나온다. 그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7-8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음식과 옷을 누려라: 서두 명령형 (레크[לֵךְ], 에콜[אָכַל], 샤테[שָׂתה], 너는 가서 먹고 마셔라, 7절) + 3인칭 미완료 동사 복수(8절)

〈9절〉, 그(하나님)가 주신 아내와 생명을 누려라: 서두 명령형 (르에하임 임 잇샤[רְאֵה חַיִּים עִם-אִשָּׁה])

27) 18절에 먹고, 마시고, 본다는 말이 세 개가 동일 구조로 반복되는 삼단양식 구조를 보여준다(le'ekôl, lišôt, lirôt); 19절에서도 이러한 삼단양식적 요소가 나온다(먹고, 분복을 취하고, 즐거워하는 것, le'ekôl, lāsê't, liśmôah).

28) 브라운은 ‘욕망의 한계들(the limits of Desire)을 다루는 전 6:1-12를 6:1-6[the inability to enjoy], 6:7-9[sight, appetite, and the impotency of wisdom]; 6:10-12[who knows the good?]로 내용적 소단락을 이룬다고 본다(William P. Brown, 64-71); 필자는 7-10장의 단락구분은 거의 모든 학자들 간에 차이를 나타낸다. 내용적 구조의 이해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Michael A. Eaton의 이해에 동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락을 크게 구분한다: suffering and sin(전 7:1-8:1); authority, injustice and the life of faith(전 8:2-9:10); wisdom and folly(전 9:11-10:20). 그러나 필자는 전도서 7:1-8:1을 전 7:1-12; 7:13-14; 7:15-8:1으로, 전도서 8:2-17을 전 8:2-8; 8:9-15; 8:16-17로, 전도서 9:1-12를 전 9:1-6; 9:7-10; 9:11-12로, 전도서 9:13-10:20을 전 9:13-10:4; 10:5-7; 10:8-20으로 나눈다.



〈10절〉, 모든 일을 힘껏 행하라: 명령형 (브코하카 아세[עשה כבכה]).

이 세 문장은 각각 2인칭 명령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10절의 경우, 결론부로서 명령형을 도치시킴으로 그 내용을 강조한다(그러나 명령형의 고유의 특징대로 내용상 서두적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되, 해야 할 일들을 힘껏 해야 함을 선포한다.²⁹⁾

위의 관찰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매우 다양한 수사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혜적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삼단양식적 특징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전 2:1-26; 특히 18-23; 3:10-15; 전 4:1-16; 5:18-20; 9:7-10).

4. 전도서 11:1-12:8의 구조와 내용

전도서 11:1-12:8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단락 A〉 명령형 11:1-2 (서두)

3-6절, 내용전개 (창조주 언급, 하엘로힘 아세르 야아세 에트 하콜[כל הַאֱלֹהִים אֲשֶׁר יַעֲשֶׂה אֶת-כָּל]; ‘알 하아레쯔’(על-הָאָרֶץ, 땅위[11:2]); ‘라이’(רעה, 재앙[11:2])

7-8절 결어³⁰⁾ ----- 헛됨 선언(하벨[הַבֵּל], 하엘로힘[הַאֱלֹהִים] 5절)

〈둘째 소단락 B〉 명령형 11:9 (서두)

10절 결어 ----- 헛됨 선언(하벨[הַבֵּל], 하엘로힘[הַאֱלֹהִים] 9b절)

29) 이러한 삶과 지혜의 균형의 문제는 전도서 11:1-12:8에서 다시 재전개되며 강조되는 내용이다.

30) Robert Lohfink, *Qoheleth*, 133-134; Lohfink는 7-8절을 1-6절의 결론부로 본다; 참조, H. W. Hertzberg, *Prediger*, 198-204.



〈셋째 소단락 A〉 명령형 12:1 (서두) (창조주 언급, 보르에카[בּוֹרְאֵיךָ])
2-7절, 내용전개; ‘알 하아레쯔’(עַל-הָאָרֶץ), 땅위[12:7]); ‘라이’(רַעַה, 곤
고[12:1])

8절 (결어) ----- 헛됨 선언(하벨 הַבֵּל), 하엘로힘(הַאֱלֹהִים 7절)

헤벨(הַבֵּל)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 나오며 신학적 중추역할을 하는 어휘
이다(총 38회, 그중 1-2장과 11-12장에 총 19회).³¹⁾ 이 어휘는 전도서
1-2장에서 총 14회(1장 6회, 2장 8회)가 나온다. 이 책의 서두에서 강조
용법으로(1:2, 5회) 그리고 구조체의 결어역할로(2:11, 17, 26) 나온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서 강조용법으로(12:8, 3회) 그리고 구조체의 결
어역할로(11:8, 10; 12:8)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1-2장과 11-12장이
구조적으로 상호연결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배치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전도서 12:8은 1:2와 상응적 위치에 있으면서 책 전체의 결
어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도서 12:1-7의 결어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³²⁾
이것은 전도서 1:2가 전도서 전체의 서두 역할을 함과 동시에 1:2-11의
서두역할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도서 1:2에서는 헤벨이 5회 나오
고, 12:8에서는 3회 나오며 1:2의 변형된 표현으로 나온다. 이러한 변화
는 전도서 12:8이 단순히 전도서 1:2의 반복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도서 12:8은 전도서 1:2의 상응본문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
내 준다. 전도서 12:2-7의 결론부로서 전도서 12:2-7에서 전개되어있
는 인생무상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적절한 본문이다. 헤벨(הַבֵּל)의 삼단양
식적 사용-용례는 전도서 2:1-26; 2:18-23; 4:1-16에서 볼 수 있다.

하엘로힘(הַאֱלֹהִים)은 3개의 소단락(11:1-8; 9-10; 12:1-8)에서 각

31) Douglas B. Miller는 BHS의 수정제안(cf. LXX)을 받아들여 전 920에 הַבֵּל을 추가하여 총 39회로 계산한다(여
기에서는 MT 용례만을 계수하여 38회임); Douglas B. Miller,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h's work* (Atlanta: SBL, 2002).

32) 전 128의 복합적 기능에 관해서, 참조, Douglas B. Miller, *웃글*, 150-151; G. S. Ogden, "Qoheleth XI 7-XII 8",
27-35.





각 한 번씩 언급되며, 서로 연결된다.³³⁾ 특히 첫째 소단락(전 11:1-8)과 셋째 소단락(전 12:1-8)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그 내용을 강화한다(11:5, 하엘로힘 아세르 야아세 에트 하콜[אֱלֹהִים אֲשֶׁר יַעֲשֶׂה אֶת-הַכּוֹל] // 12:1, 보르에카[בּוֹרְאֵי]). 여기에 나오는 두 동사 ‘아사’와 ‘바라’는 창1:1-2:4a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가리키는데 나오는 병행적 동사이다. 특히 창 2:3에는 여기에 언급되어있는 표현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온다(‘엘로힘’, ‘콜’, ‘바라’, ‘아사’). 이 병행적 특징도 11:1-8과 12:1-8의 문학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전도서 11:1-12:8은 첫째 소단락과 셋째 소단락이 이와같은 병행적 면모를 가진 삼단양식적 구조체이다. 전도서 11:2과 12:7에서의 ‘알 하아레쯔’(עַל-הָאָרֶץ, ‘땅위’)의 병행과, 전도서 11:2과 12:1에서의 ‘라아’(רָעָה [재앙, 곤고])의 병행도 첫째 소단락과 셋째 소단락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전도서 11:1-12:8을 하나의 독립된 통일체로 보게 하는 문학적 요소이다.

1) 전도서 11:1-8의 구조

전도서 11:1-8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1-2절, 두 개의 2인칭단수명령형 (살라흐 הַלַּח, 1절; 텐 תֵּן, 2절) + 로 테다(עָלֵי לֹא 부정어, 너는 알지 못한다)

B. 3-4절, 3인칭 서술형 동사

3a절(임[אֵין...], 인칭 복수) // 3b절(임[אֵין...]+ 임[אֵין...], 인칭 단수);

4절(분사, 부정어 미완료 3인칭동사 // 분사, 부정어 미완료 3

33) 하엘로힘(אֱלֹהִים)의 삼단양식적 용례는 전도서 4:1-16; 5:18-20(cf. 5:1-7)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전도서 4:1-16에서는 전도서 11:1-12:8에서처럼 하엘로힘(אֱלֹהִים)과 헤벨(הֶבֶל)이 함께 연결되어 삼단양식적 요소를 구성한다.





인칭동사)

A'. 5-6절, 2인칭 단수형 서술

5절(כ[כ], 부정어 + כ[כ], 부정어) + 엔카 요데아(עָדָה אֲנִי אֵינִי 부정어, 너는 알지 못한다); 로 테다(לֹא תָדָע 부정어, 너는 알지 못한다)

6절(두 개의 2인칭단수명령형: 제라[עָרָה], 타나흐[תָּנַח], 6a절) + 엔카 요데아(עָדָה אֲנִי אֵינִי 부정어, 너는 알지 못한다) + 첫 번째 소단락 전체의 결론부(‘바브’, 7-8절)

A(1-2절)와 A'(5-6절)는 각각 그 말미에 부정어(너는 알지 못한다)를 포함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A와 A'는 각각 두 개의 2인칭단수명령형동사로 서두와 말미를 병행으로 열고 닫으며(1-2절 // 6절, inclusio), 내용상, 미래를 위해 선(charity)이 되는 일을 행하라는 내용을 선포한다(A, 떡을 보내라, 나누어주라; A', 씨를 뿌려라).³⁴⁾

B(3-4절)는 진리를 3인칭 서술형동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A의 내용을 부연하며 A'를 예비하는 전환부 역할을 한다. 3-4절(B)의 해석과 관련하여 크뤼거는 이 본문이, 구름과 쓰러진 나무를 통하여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풍자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³⁵⁾ 그러나 크뤼거는 3-4절을 자연현상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인간의 무력함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들을 부정하지 않는다.³⁶⁾ 어떤 해석이든 3-4절은 1-2절에서 언급된 인간의 무력함에 관한 메시지를 부연한다. 미래를 알려는 인

34) Christian D. Ginsburg는 전 11:1-2를 선(charity)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레헴(לֶחֶם)이 결코 merchandise(상품)를 의미할 수 없다는 점과 아랍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잠언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표현을 선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한다; Christian D. Ginsburg, *Qoheleth*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861, 1970), 447-448; Thomas Krüger, *Qoheleth*, 191-195.

35) Thomas Krüger, *Qoheleth*, 193-194; M.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vol. I. (London: SCM Press, 1974), 236-254.

36) Thomas Krüger, *Qoheleth*, 194; 참조, Michael A. Eaton, 141-142; Norbert Lohfink, *Qoheleth*, 132-134.





간의 수고(구름과 나무를 통해 점을 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구름과 쓰러진 나무는 자연의 법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객관자적 서술 방식으로 전개된다. 5-6절(A')은 3-4절(B)의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이 메시지를 재강조하며 명료화한다.

A'(5-6절)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창조의 하나님, הַאֱלֹהִים אֲשֶׁר יַעֲשֶׂה אֶת-הַכֹּל)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5절, אֵינְךָ יוֹדֵעַ (의 반복[A'] // לֹא תִרְעֶה [2절, A]). 그리고 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열심을 다해 꾸준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2인칭 단수명령형으로 선포한다. 6절은 수사학적(두개의 2인칭 단수명령형)으로 내용적으로 1-2절과 병행을 이루며 전체의 내용을 마감한다.³⁷⁾ 그리고 전도서 11:2의 '라아'(רָעָה [재앙, 곤고])는 12:1에 다시 나오므로 병행을 이루고 있고, 이요소도 전도서 11:1-8을 전도서 12:1-8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도서 11:1-8에 전개되어 있는 곤고('라아'[רָעָה])의 시절을 대비하여 선을 행하라는 권면은 노년과 죽음이라는 곤고의 때에 대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과 내용적 병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전도서 11:2의 '알 하아레쯔'(עַל-הָאָרֶץ, '땅위')는 12:7에 다시 나온다. 그리고 내용상 11:3-6과 12:2-6이 동일하게 '땅위'(알 하아레쯔)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이 두 부분의 병행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양자가 서로 연결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년과 죽음의 준비를 말하며 인생의 허무성('하벨'의 반복적 강조)을 말하는 이 문맥에서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지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며, 오히려 노년과 죽음의 준비로 선을 행하라는 권면이

37) Thomas Kr ger, *Qoheleth*, 195; Michael V. Fox, *Qoheleth and His Contradictions* (Sheffield: Almond Press, 1989), 276-277; idem, *Ecclesiastes*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74.





더 적합하다. 따라서 ‘하벨’을 중심요소로 구성된 이 삼단양식적 단락에서 11:1-2를 사업적 지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1-2절의 내용을 ‘재산을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기업가적 수완’을 강조하는 사업적 지혜로 이해하는 대신³⁸⁾, 노년과 죽음의 때를 생각하여 선을 베푸는 참다운 삶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실제 11:1-2를 사업적 지혜로 한 해석은 전도서의 다른 부분들과 다소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도서 5:10-12는 재산과 부를 부정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13절에서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전도서 11:1-2을 선을 두루 널리 베푸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경우, 이본문은 전도서 3:12에서 강조된 선행의 중요함과 조화를 이룬다. 전도서 3:12의 말씀은 매우 특별하고 유일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אֵין טוֹב בָּם כִּי אִם-לְשֹׁמוֹחַ וּלְעֵשׂוֹת טוֹב בְּחַיָּיו

(‘엔 토브 밤 키 임 리스모아흐 벨라아소트 토브 베하야이브’)

여기에서 이 표현은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최상급적 강조용법으로 선포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된 내용이 결론부에서 다시 언급된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베하야이브[בְּחַיָּיו, 전 3:12], 이것은 그에게 아직 노년과 죽음의 때가 오기 전[전도서 12:1-8] 곧 젊은 날[전도서 11:9; 12:1]과 내용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실천할 능력이 있는 동안, 곧 그가 노년과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에

38) NEB, TEV, 공동번역성서, 표준 새번역,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337.



서 이 내용이 전도서 11-12장의 서두에 오는 것은 적당하며, 이 본문 전체(전도서 11-12)의 서두로서, 노년과 죽음의 때를 생각하여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전 12:1-8(그리고 11:9-10)과도 내용상 조화를 잘 이루게 된다. 이 본문의 삼단양식적 이해는 이 본문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구조적 차원에서 지지해준다.

그리고 전도서 11:1-6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내용은 전도서 1-10장 전체를 통하여 특히 8-10장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다는 점(전 8:6, 16; 9:1, 12; 10:14; 7:13-14) 곧 인간 지혜의 한계를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결론부(전 11:1-12:8)의 서론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리고 1-6절과 접속사 '바브'로 연결되어 있는 7-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며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첫째 소단락 전체(전 11:1-8)의 결론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면모 곧 인간 지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연결되는 용례는 이미 9장에서도 나온다(1-6절, 인간의 한계; 7-8, 9-10절, 12장 1-2절, 힘을 다해 살라는 말씀).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어두운 면도 있으나 기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가르침의 조화(전 11:7-8)도 9장에 나오는 내용이다(전 9:11-12, 7-10). 그리고 이것은 이 단락의 둘째 소단락(11:9-10)과 셋째 소단락(12:1-8)에 다시 나타나는 내용이다.

이 첫째 소단락에서 나오는 자연현상 어휘(구름들[2회], 비, 바람)는 전도서 12:2에 '그날' 곧 늙음과 죽음의 날을 서술하는데 다시 나온다. 이것은 전도서 11:1-8과 전도서 12:1-8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사학적 요소이다. 내용상 이 구조체(11:1-12:8) 전체의 서두(전 11:7-8)에서, 빛(해, 7절)과 어두움(8절)의 대조를 통하여 인생의 명암(청년과 노년, 즐거움과 괴로움)을 상징적으로 서술한다. 이 표현은 이 본문 전체(전 11:1-12:8)의 서두 진술로서 매우 적절한 표현이며, 전체 내용의



서론적 무대설치의 역할을 한다. 이 첫째 소단락은 해와 빛이 언급되는
 곁어(전 12:1-2)와 내용 및 수사학적 병행을 이룬다.³⁹⁾ 그리고 ‘하벨’로
 끝을 맺으며 그 다음의 두 소단락들과 병행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미래
 에 대한 불투명성(전 11:2)’,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수 없다는 사실(5
 절), 어두운 날이 온다는 것(8절)은 12:1-8의 곤고한 날의 주제와 잘 조
 화를 이룬다. 이 단락의 핵심적 곁어인 ‘하벨’과도 잘 어울린다. 이 양자
 (전 11:1-8과 12:1-8)의 병행적 관계는 전도서 12:3-5의 해석과 번역
 에 있어 전도서 11:1-6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땅위에서의 자연
 적 상황’으로 이해하게하며, 이 본문의 문자적 해석의 필요성을 지지해
 준다. 표준 새번역 성경을 포함한 여러 주석들이 전도서 12:3-5의 표현
 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בְּיָמֵי הַבַּיִת[쇼므레 하바이트, ‘집을 지
 키는 사람들’; 표준 새번역: ‘보호하는 팔’]; אֲנָשֵׁי הַחֵיִל[아느웨 헤하일,
 힘이 있는 사람들; 표준 새번역: ‘정정하던 두 다리’]; טוֹחַנוֹת[토하노트, 멧
 돌질하는 사람들; 표준 새번역: ‘이’]; הַרְאוֹת בְּאֲרָבוֹת[하로오트 바아루
 보트, 창으로 보는 사람들; 표준 새번역: ‘눈’]; רֵלָתַיִם[텔라타임, 문들; 표
 준 새번역: ‘귀’] 등).⁴⁰⁾ 이것을 문자적 의미를 살려서 폭풍우에 직면해 있
 는 땅위의 들과 사람과 생물들의 모습을 서술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
 을 것이다.⁴¹⁾

2) 전도서 11:9-10의 구조

전도서 11:9-10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용상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있다.

39) 프레데릭스는 이 양자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구름과 비의 병행적 요소를 강조하며 전 12:3-8의
 내용을 기상학적 이미지로 해석한다. Daniel C. Fredericks, 105-114.

40) George Aaron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187-191; J. A. Loader, *Ecclesiastes*, 131; Roland E. Murphy,
Ecclesiastes (WBC; Dallas: Word Books, 1992), 118-119.

41) 참조, 본 논문, 4.3. 전도서 12:1-8의 구조.





A <9a절>, 청년의 때를 즐겨라(세마흐[שמח])

B <9b절>, 그러나 하나님(‘하엘로힘[האלהים]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דע])

A' <10절>, 청년의 때를 즐기라(근심을 제거하라)는 권고의 재전개(하세르[חסר])

이 둘째 소단락은 각각 2인칭단수명령(세마흐[שמח], 다[ע], 하세르[חסר])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문절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전도서 11:1-8과 전도서 12:1-8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벨[הבל]’로 끝을 맺으며 삼단양식구조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도서 11:9은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새 소단락을 시작한다. 전도서 11:9-10에서는 이 단락(전 11:1-12:8) 전체의 핵심적 내용이며 전도서 전체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인생을 즐기며 누리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경계의 내용⁴²⁾을 요약한다: 젊음도 덧없이 흘러간다. 젊음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유념하라.

이 내용은 전도서 12:1-7에서 마치 한 문장처럼 전개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2인칭 단수 명령형[제코르[זכר]) + ---전에(아드 아세르[עַד אֲשֶׁר, 2절) + ---전에(아드 아세르[עַד אֲשֶׁר, 6-7절). 여기에서(전 12:1-7) 노인의 때를 상세히 서술하며 이 단락을 마감한다. 여기에서는 노년의 삶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이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선포한다(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8절). 이와같이 전도서 11:9-10은 이 구조체의 말미(12:1-8)와도 연결되며 삼단양식의 중심부 역할을 한다(pivotal function).

전도서 11:1-8에서 언급된 삶의 보편적 진리(선을 행하며 즐겁게 사

42) 참조 전 129-12, 57; 8:13; 7:13-14; 9:7-10.



는 삶의 필요성과 노년과 죽음의 날의 준비와 어두운 날에 대한 기억의 필요성의 조화)를 11:9-10에서 이 조화의 필요성이 가장 심각하게 요구되는 청년들에게 적용하며 그 메시지를 재전개한다. 동시에 전도서 11:9-10은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언급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상 전도서 12:1-8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도서 12:1-8에서는 특히 11:9-10에서 전개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회화적으로 서술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도서 12:1-8은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도서 12:1-8의 구조

전도서 12장 1-8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1-2절, 2인칭단수명령형(제코르[זָכַר]) + 아드 아세르[עַד אֲשֶׁר] + 아드 아세르[עַד אֲשֶׁר], 창조주[בּוֹרֵא] 보레, 1절; 자연현상표현, 구름, 비)

B. 3-5절, ‘그날[בְּיוֹם]’에 대한 서술

A'. 6-7절, 아드 아세르[עַד אֲשֶׁר], 하나님[הָאֱלֹהִים, 7절]
+ 결론부: 8절 ‘하벨[הַבֵּל]’.

A의 1절은 이 단락전체의 서두이며 2-7절의 주절이다. 이 본문은 삼단양식구조 A-B-A'를 구성하고 있다. A와 A'는 창조주(בּוֹרֵא 1절)와 하나님(הָאֱלֹהִים, 7절)의 언급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A(1-2절)와 A'(6-7절)는 ‘아드 아세르[עַד אֲשֶׁר]’로 서로 병행을 이루며, ‘그 날에는(בְּיוֹם)’이라는 말로 B(3-5절)에서 서술되는 노년의 때에 관한 내용과 연결된다. 여기에 나오는 자연현상적 표현은 노년과 죽음의 때를 상징하며,⁴³⁾ 이 주제(1-2절[6-7절])는 B에서 다시 부연적

43) 이 표현들은 종말론적 상황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참조, Thomas Krüger, *Qoheleth*, 201-204.



으로 전개된다. 특히 비와 구름이 덮이는 재앙의 상황(2절[A])은 3-4절 (B)과 연결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⁴⁴⁾

3-5절의 결론부인 5b절은 이 소단락의 내용이 죽음의 때를 설명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사람이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 거리에 곡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이 부분(3-5절[B])은 전체적으로 구름과 비가 몰려올 때의 상황(사람, 거리, 정원과 들의 모습들)을 서술한다.⁴⁵⁾ 이 서술의 내용은 인생 말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3a절에서 건장한 남자들(집을 지키는 자들, 용사들, ‘남성복수형’), 3b절에서 여자들(멧돌을 가는 자들과 창으로 바라보는 자들, ‘여성복수형’)이 언급된다.⁴⁶⁾ 4a절은 이 때 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라는 말을 통해 폭풍우의 위기를 서술한다. 4b절은 정원의 새들의 모습을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⁷⁾ 프레데릭스는 4b절과 5a절을 모두 정원의 새들의 모습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고, ‘비록 새소리에 사람이 깰지라도’라는 표현을 폭풍의 불길한 전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며,⁴⁸⁾ 결국 모든 새들도 두려움에 잠잠케 되고(4b절),⁴⁹⁾ 심지어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높은 자리에서도 두려워 떨고 거리에서 공포를 보게 될 것임을 가리킨다고 본다

44) Daniel C. Fredericks, 107-112.

45) Christian D. Ginsburg, *Coheloth*, 457-469; Daniel C. Fredericks, *윳글*(1991), 107-108; 고디스는 여기에 폭풍을 가리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이 해석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폭풍우를 전제로 한 해석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전 122는 겨울에 내리는 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비가 내린 후에는 맑은 하늘이 기대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 뒤의 구름들이라는 예외적 상황 곧 재앙의 상황(곤고의 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본문의 전체적 상황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상상황을 암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충분히 폭풍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ntra* Robert Gordis, 338-344).

46) 표준 새번역은 이것은 알레고리적으로 번역해내(보호하던 말; 정정하던 두 다리[3a절]; 이, 눈 [3b절]; 귀[4a절] 등), 전 11:1-6과 12:1-7의 수사학적 병행관계는 오히려 11:1-6처럼 12:1-7에 언급된 자연현상적 서술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47) R. N. Whybray, 165; Tremper Longman III, 27; Robert Gordis, 343.

48) Daniel C. Fredericks, *윳글*(1991), 109.

49) shall be brought low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이사후 𐤀𐤏𐤁𐤁 (사하호)는 '사하호의 니팔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서 니팔형으로는 이시아 29; 5:15; 29:4 등에 나온다. 이 모든 용례에서 무엇인가 낮아지고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a절).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 상징어의 내용적 일관성(자연현상을 반영)이 있다. 비록 새들이 높은데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늘을 나는 새들마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폭풍 곧 노년과 죽음의 두려움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전도서 12:4에 언급되어 있는 ‘노래하는 딸들’을 직역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도서 12:4의 ‘새 소리’에서의 새(하찌포르)는 남성단수명사이고, 그 뒤에 나오는 ‘노래하는 딸들’의 딸들(콜 베노트)은 여성복수명사이다. 따라서 이 둘을 쉽게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5a절에서 ‘높은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새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⁵⁰⁾ 이미 전도서 11:5에도 ‘아이 밴 자의 태’(브베텐 하멜레아[הַמְלֵאָה הַבְּטֵן])라는 표현을 통하여 ‘여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은 12:5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람(‘노래하는 딸들’)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어지는 5aβ절은 세 개의 대상을 언급한다(아몬드[샤케드]; 메뚜기[하갑]; 케이퍼[아비요나]).⁵¹⁾ 이것도 이 본문의 삼단양식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몬드(샤케드), 접속사 바브[וַ] + 3인칭 동사 미완료[יָרַחַ] + 정관사, 단수주어[הַשָּׁקֵד]

메뚜기(하갑), 접속사 바브[וַ] + 3인칭 동사 미완료[יִסְבֹּב] + 정관사,

50) Christian Ginsburg는 5a절의 주어를 사람들로 보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Yea the people shall be frightened.” (Christian Ginsburg, 46).

51) 이것도 표준 새번역은 알레고리적으로 번역하네(“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개역에서는 각각 ‘살구나무’, ‘메뚜기’, ‘정욕’이라고 번역함; “When the almond tree blossoms, The grasshopper is a burden, And desire fails” [NKJV; NV; RSV; NRSV; ASV]), 이것도 위에 언급된 동일한 구조적 이유에서 문자적으로 직역할 필요가 있다(c. “the almond tree blossoms, the grasshopper drags himself along, and the caperberry is ineffective” [NASB]; “the almond tree is disgusting, the grasshopper drags himself along, broken is the caperberry bush”, Daniel c. Fredericks, 110).

단수주어[ההנב]

케이퍼(아비요나), 접속사 바브[ו] + 3인칭 동사 미완료[תפר] + 정관사, 단수주어[האבינה]

여기에서 이 세 대상물은 강함과 원기와 힘을 상징한다. 아몬드는 민수기 17장에서 싹을 내는 나무 생명력과 관련된 나무로 나오며 일찍 꽃을 피는 힘있는 나무로 인식되어진 나무이다. 그리스의 전설, 데모폰(Demophon)과 필리스(Phyllis)의 이야기에 도 역시 생명력과 소생과 관련된 나무로 언급된다.⁵²⁾ 케이퍼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알려져 있다. 탈무드(Beitzah 25b)는 ‘아비요나’(케이퍼)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fierce) 세 가지로 중의 하나로 언급한다(이스라엘[국가], 염소[동물], 아비요나[식물])를 꼽는다. 그리고 메뚜기 역시 번식력이 강하며 잘 뛰고 잘 나는 힘 있는 생물로 여겨지는 곤충이다.⁵³⁾ 이 세 대상물의 공통점은 그들의 힘과 에너지이다. 이러한 것들도 폭풍우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5a절 קני)의 MT), 기를 펴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 대한 서술 이후 이제 5b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3-5절(B)을 마무리한다.

6-7절(A)에서 이 단락의 서두(1-2절, A)에서 나왔던 ‘아드 아세르’를 다시 반복하면서 서두와 연결하여 이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여기에(7절) 나오는 ‘하엘로힘’과 1절에 나오는 ‘창조주’에 대한 선포는 서로 함께 연결되어 전도서 11:1-8(5절)과 병행을 이루며 첫째 소단락(11:1-8)과의 병행적 관계를 보여주고, ‘하엘로힘’은 이 본문(11:1-12:8)의 말미에 나오면서 이 본문

52) ‘아몬드’(almond),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편, 『종교학대사전』, (서울:한국사전연구사, 1998), 810.

53) Daniel C. Fredericks, 윗글(1991), 109.

54) 참조. Daniel C. Fredericks, 윗글, 109-110. 많은 현대 주석가들이 קני(disdain, treat disrespectfully)대신 קני(blossom)으로 해석하나, 프레데릭스의 해석(treated with disdain; made to look disgusting; 그의 번역 참조)은 MT(ketib)를 그대로 따르는 이점이 있다. 참조. R. N. Whybray, 166; Robert Gordis, 344.



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세 개의 소단락(전 11:1-8; 9-10; 12:1-8)에 각각 나옴으로 이 세 소단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개의 소단락은 각각 고유한 삼단양식적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첫째 소단락(11:1-8)과 셋째 소단락(12:1-8)이 각각 별도의 결론부(11:7-8과 12:8)를 갖는 구조적 병행도 보여주고 있다. 이 본문은 이러한 삼단양식적 구조체(A-B-A')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도서 12:8에 나오는 '하벨'의 3번 반복적 선포를 통하여 강화된다. 이 단어의 반복적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간적 열락과 탐심의 허무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경외의 당위성을 최종적으로 강조하며 전도서 12:1-8과 11:1-12:8, 그리고 이 책의 본체부인 1:2-12:8을 전체적으로 마감한다.

5. 결론

성서의 단락과 구조의 이해에 있어 논란이 많이 있어온 본문중의 하나가 전도서 11:1-12:8이다. 많은 학자들은 전도서 11:7-12:7(8)을 전도서 11:1-6과 구별된 독립된 하나의 단락으로 취급한다. 최근의 그 대표적 학자로 오그덴(G. S. Ogden)을 들을 수 있으며, 프레데릭스(Daniel C. Fredericks)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전도서 11:1-12:8을 문학적 단일 구조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전도서 11:1-12:8을 단일구조체로 보는 프레데릭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프레데릭스의 구조이해에 일련의 문제점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보완하려 시도하였다. 특히 삼단양식적 관점에서 이를 보완하려 시도하였다. 이 삼단양식은 전도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수사학적 특징 중의 하나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사학적 양식이 전도서 11:1-12:8의 기본적인 구조적 특징임을 관찰하였다(전 2:1-26; 특히 18-23; 3:10-15; 전 4:1-16; 5:18-20; 9:7-10). 전도서



11:1-12:8은 ‘헤벨’과 ‘창조주 하나님’을 구조체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여 삼단양식적 열개를 갖추고 있으며 세 개의 소단락 11:1-8, 11:9-10, 12:1-8의 유기적 상관관계 속에 신학적 내용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의 수미상응적 대칭점에 있는 전도서의 서두 부분(1:2-2:26)인 2:1-26에서도 11:1-12:8에서와 마찬가지로 ‘헤벨’을 말미어로 사용하는 삼단양식적 구조를 보여준다. 이 세 개의 소단락은 각각 고유한 삼단양식적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첫째 소단락(11:1-8)과 셋째 소단락(12:1-8)이 각각 별도의 결론부(11:7-8과 12:8)를 갖는 구조적 병행도 보여주고 있다. 이 본문은 이러한 삼단양식적 구조체(A-B-A)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도서 12:8에 나오는 ‘헤벨’의 3회 반복적 선포를 통하여 이 내용을 강화하며 동시에 하나님 없는 인간적 탐심과 열락의 허무성의 강조한다. 이 단어의 반복적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의 당위성을 최종적으로 강조하며 전도서 12:1-8과 11:1-12:8, 그리고 전도서의 본체부분인 1:2-12:8을 마감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도서 11:1-12:8의 문학적 단일성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시적 치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도서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삼단양식적 구조이해는 전도서 11:1-2를 ‘사업적 지혜’라기보다는 ‘선행의 실천’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하는 해석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도서 12:3-5에 나오는 표현들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들이 전도서의 번역(특히 새로운 한글 번역 성경)과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6. 참고문헌

-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편, 「종교학대사전」, 서울:한국사전연구사, 1998.
-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4.
- Bartholomew, Craig G,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9.
- Barton, George Aar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2.
- Brown, William P,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0.
- Delitzsch, F, *Ecclesiastes*,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6, eds. C. F. Keil / F. Delitzsch,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866, 2001.
- Eaton, M. A, *Ecclesiast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3.
- Fox, Michael V, *Qoheleth and His Contradictions*, Sheffield: Almond Press, 1989;
- , *Ecclesiastes*,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Fredericks, Daniel C. “Life’ s Storms and Structural Unity in Qoheleth 11:1-12:8”, *JSOT* 52(1991), 95-114.
- Fredericks, Daniel C, / Estes, Daniel J,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0.
- Ginsburg, Christian D, *Cobeleth*,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861, 1970.
- Gordis, Robert,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 Hahn, Roger and others, *Discovering the New Testament: Community and Faith, Kansas*: Beacon Hill Press, 2004.
- Hengel, M., *Judaism and Hellenism, London*: SCM Press, 1974.
- Hertzberg, H. W., *Predig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Mohn, 1963.
- Kissane E. J., *The Book of Isaiah, Translated from a critically Revised Hebrew Text with Commentary*, Dublin, 1943.
- Krüger, Thomas, *Qohelet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4.
- Lauha, Aarre, *Kohelet*,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oader, J. A. *Ecclesiastes*, Grand Rapid s: Eerdmans, 1986.
- Lohfink, Norbert,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3; 원제 Kohelet, W rzburg: Echter Verlag, 1980.
- Miller, Douglas B.,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h's work*, Atlanta: SBL, 2002.
- Murphy, Roland E., *Ecclesiastes*, WBC, Dallas: Word Books, 1992.
- Ogden, G. S., "Qoheleth XI 7-XII 8: Qoheleth' s Summons to Enjoyment and Reflection" , *VT* 34(1984), 27-38;
- ____, "Qoheleth IX 17-X 20: Variations on the Theme of Wisdom' s Strength and Vulnerability" , *VT* 30(1980), 27-37;
- ____, "Qoheleth XI 1-6" , *VT* 33(1983), 222-230.
- Ogden, G. S. and Zogbo, Lynell, *A Handbook on Ecclesiast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7.
- Park, Cheol-Woo, "The Triadic Pattern: A Study in the Structure of Isaiah 40-48" , Doctoral Dissertation (Aberdeen University, 1984).

Shamir Yona, "Pivot Patter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henomena in Biblical Parallelism," 『구약논단』 40(2011), 166-184.

Senior, Donald, *The Gospel of Matthew*, Nashville: Abingdon, 1997.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8.

Witzenrath, Hagia, Süßist das Licht... *Eine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zu Kohelet 11,7 12,7*, Eos Verlag, 1979.

Whybray, R. N., *Ecclesiastes*,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9.

주제어

전도서 11:1-12:8

삼단양식

문학적 통일성

해별

창조의 하나님

수사학적 특징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Qoh 11:1-12:8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riadic Pattern

Cheol-Woo Par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Qoh 11:1-12:8 is one of the most disputed passages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its structure and demarcation of literary units. Many scholars consider Qoh 11:7-12:7(8) as an independent unit, separate from 11:1-6. G. S. Ogden is one of those recent scholars representing this position. Daniel C. Fredericks raised an opposite view, and claimed that Qoh 11:1-12:8 is an independent literary unit.

I am at one with Daniel C. Fredericks on seeing it as a single independent

structure. However, I detected some problems in his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passage and have attempted complement his structural view. Particularly I approached the passage from the angle of the triadic pattern of Hebrew literature. The triadic pattern is an important rhetorical device and appears throughout the book of Qoheleth (cf. 2:1-26; esp. 18-23; 3:10-15; 4:1-16; 5:18-20; 9:7-10).

Qoh 11:1-12:8 was composed in the literary frame of the triadic pattern with hebel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d of creation as its central literary components, and by developing its theological contents in the interconnection of three subunits 11:1-8, 11:9-10, and 12:1-8. Each of these three subunits was composed with its own triadic pattern(A-B-A' structure). Additionally, the structure of the first subunit (11:1-8) and third subunit (12:1-8) are in structural parallelism in that both similarly have an additional concluding passage in their endings. This unit (11:1-12:8)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fear of God of creation and the vanity of human folly. It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threefold emphasis of hebel at the end of the unit(12:8). All these elements and other particularities analysed in the article show the literary unity of Qoh 11:1-12:8 with its triadic pattern of structure, and the poetical artistry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ffort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Qoheleth.

Keyword

Qoheleth 11:1-12:8

Triadic pattern

Literary unity

hebel

God of creation

Rhetorical particularity

- 투고일: 2013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05일